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⑩ 훈민정음(訓民正音)



이 중 훈
포천시향장
경기도문화재단이사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든 문자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은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世宗)이 집현전(集賢殿) 학자들과 함께 만든 문자이다. 훈민정음의 공포와 동시에 정인지(鄭麟之)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설명한 한문 해설서를 전권 33장 1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책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왕권의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 태종은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했다. 새로 즉위한 왕이 곧 세종대왕이다. 세종이 통치하던 시대는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시대였고, 이 안정 위에서 문화의 꽃이 활짝 열렸던 시기였다.

민正音)은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룩한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었다.

세종은 그때까지 사용되던 한자가 중국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배워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1443년에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하고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으며 3년 후에 공포하였다. 이 책은 정인지 등 집현전의 8학자가 집필한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는 세종이 직접 지은 것이다. 그 내용은 새 문자를 창제한 목적을 밝힌 훈민정음 서문과, 새 문자 28자를 차례로 예시하고 설명한 다음에 이들을 결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예구로 되어 있다.

제2부는 학자들이 지은 본문에 대한 주석(註釋)이다. 그것은 새 문자의 제작원리를 설명한 제자해(製字解), 음절(音節) 두음(頭音)을 표기하는 자음 17자를 설명한 초성해(初聲解), 모음 11자를 설명한 중성해(中聲解), 음절말 지음을 설명한 종성해(終聲解), 초성·중성·종성이 결합하여 음절을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한 합자해(合字解), 새 문자로서 단어를 표기할 예를 보인 용자례(用字例)의 6장으로 나뉜다. 끝에는 정인지의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서문이 붙어 있다.

훈민정음은 전체 분량이 본문 4

장, 주석과 정인지의 서문 29장으로 된 33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전체가 정연하고 서술이 과학적인 책이다. 문자를 만든 원리와 문자 사용에 대한 설명은 현대의 세계 언어학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든 후 정음청(正音廳)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한글로 된 노래를 짓도록 하고, 한글로 된 서적을 편찬하게 했다. 조선 왕실 조상의 덕을 기리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부처를 찬양하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등은 그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들이다.

훈민정음은 창제당시 28자로 오늘날에는 24자로 사용되는데, 한국어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기와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문자체계이다. 자음 하나와 모음하나를 합치면 하나의 글자가 되고(가, 나, 도), 여기에 필요할 경우 받침을 붙인다(각, 날, 돛). 이렇게 하면 겨우 24개의 글자만으로도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들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읽고 쓰기를 자유롭게 할 만큼 쉽다는 점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시기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설서

에 특정한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자에서 직접 영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어 한 나라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나아가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한 일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훈민정음이 차지하는 의의는 크다. 훈민정음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에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쓰여졌다고 되어 있어 이날을 일력으로 환산하여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1990년부터 인류의 문명재를 낚추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해마다 상을 주고 있다. 이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상이다. 훈민정음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욕망이라는 새를 뒤쫓는 어머니에 대한 단상



박 정 구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한국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강인한 어머니상을 구현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어려운 시절 자식의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에 몰두하던 모습, 자신은 굶어가면서 자식을 먹이려는 희생정신 때문에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어찌 과거의 어머니만 여기에 해당하겠는가. 지금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 치맛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해 과외비를 마련하려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어머니상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세익스피어는 소네트(143)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찾는 아기를 놓아두고 이기적인 욕망의 새를 뒤쫓는 어머니에 대해 노래한다. “기르던 날짐승이 달아나는 것을 붙잡으려/ 찬찬한 주부가 달음질할 때/ 아기를 내려놓고 재빨리/ 주부는 달아나는 것을 쫓는다/ 때어놓은 아기가 엄마를 붙들려고 울어도/ 자기 앞에 달아나는 새에게만 /엄마는 바쁜 마음을 빼앗기기도/ 불쌍한 아기가 보채는 것은 내버려두고/ 이렇게 그대는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는 도다/ 나는 그대의 아기로, 떨어져 그대의 뒤를 따라가는데. ”

그러나 자기 자식을 위해 옳은 보지 않고 옳만 보고 내달리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치맛바람을 일으켜 교사의 공평성을 위협한다든지,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투기, 증권 투자도 불사하고 뛰어드는 그들은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그들의 모습에서 강한 어머니일지는 몰라도 신 사임당 같은 현명하고 덕이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는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를 자칭하는 주부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녔던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이런 부정적 변화는 황금만능주의나 배금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왜곡현상이지만 '맹모삼천'의 이상적 어머니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주의적 밑물을 거스르고 정화하려고 하는 천사표 어머니들이 많이 출현하기를 고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주부들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이기적 행위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욕망의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못 다한 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든지, 자식들의 일류대학 진학을 통해서 그들의 경쟁 심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초심에 가졌던 교육목적인 사라고도 부정적인 욕망의 덩어리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세익스피어는 소네트(143)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찾는 아기를 놓아두고 이기적인 욕망의 새를 뒤쫓는 어머니에 대해 노래한다.

“기르던 날짐승이 달아나는 것을 붙잡으려/ 찬찬한 주부가 달음질할 때/ 아기를 내려놓고 재빨리/ 주부는 달아나는 것을 쫓는다/ 때어놓은 아기가 엄마를 붙들려고 울어도/ 자기 앞에 달아나는 새에게만 /엄마는 바쁜 마음을 빼앗기기도/ 불쌍한 아기가 보채는 것은 내버려두고/ 이렇게 그대는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는 도다/ 나는 그대의 아기로, 떨어져 그대의 뒤를 따라가는데.”(세익스피어 소네트 143중에서)

오늘날의 주부들이 다시 생각해야하는 것은 자식들의 행복이 성공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승리를 향한 마라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에서 지친 마음을 휴식하는 인식의 시간이 행복의 성취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그러나 성취와 승리의 욕망의 새를 잡으려고 혼란 달음질한다든지 자식들을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자식들의 행복과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식들은 욕망의 나무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의 젖을 먹고 싶어한다. 즉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뒤쫓는 욕망의 허상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귀여워하고 사랑해달라는 것이다.

“그대여, 그대의 희망을 잡거든 다시 돌아와/엄마같이 키스를 하고 귀여워해 달라. /그렇다, 나는 그대가 그대의 욕망을 얻기를 바라노라./그대가 돌아와서 우는 나를 달래준다면.”(세익스피어 소네트 143에서)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사춘기의 순수한 사랑은 어쩌면 기대할 수 없는 구사대의 유물로 간주하는 듯 하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들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가를, 무한정인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충족시키려고 자식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욕구불만의 사회 반항이나 부적응아가 되기 쉽다.

오히려 이웃이나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가르쳐야 하리라. 경쟁보다는 공존과 상생이 행복을 위한 지름길을 깨닫게 하자. 뜨거워지는 여름 뜨거워지기 보다 가슴을 식히며 평안의 인식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리라.

교육에세이 41

學友는 平生의 벗!

사랑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5월에 본 린(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교육관계 형성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기별 2회씩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는 '친구 사랑의 날' 운영에 관한 글을 중심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진솔한 교육관계 형성에 대한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교우) 관계(友誼)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후 7월 9일이 다가오는데, 7월 9일은 우리 글로 옮겨 보면 '79=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평생의 벗'으로 지내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친구와의 관계 형성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情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자발적인 친구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을 사귄 수 있는 기회 중에서 어느 때에 사귄 친구에게서 가장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학창 시절에 맺은 친구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정겨운 우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우정은 오랜 세월을 두고도 진솔한 벗으로서의 감정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새록새록 더욱 깊은 정이 우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여러 시절 같이 놀던 친구, 이른바 죽마고우(竹馬故友)가 가장 가까운 친구, 허물없는 친구, 기쁜 일이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특히 학창 시절의 친구는 추억의 생터요, 고향을 떠올리게 하면서 추억의 옛 시절로 돌아가고픈 향수(鄕愁)의 상징이 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시(詩)와 가곡(歌曲)의 아름다운 소재(素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지금도 학창 시절의 옛 친구를 그리며 지은 글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편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우정, 호호한 우정을 가

꾸어 가는 것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길이며, 추억의 정을 심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아울러 친구 사이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학교는 모를지기 가정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故鄕)은 바로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꾸밈이 없고, 숨김이 없는 순수한 우정이 오고갈 때 우리나라에 되며, 또한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友誼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서 느끼는 정과는 또 다른 다정다감(多情多感)한 것이어서, 학창 시절에 하루라도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삶의 재미가 없고 친구 없는 삶의 활력소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友誼가, 서로 부끄럼없이 사귀는 동안에 우리는 감정(感情)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허물을 누우질 줄 알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아량(雅量)이 있을 때 友誼는 더욱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

지 정 주
포천여자대학교 교장



友誼란 엄격한 질서가 요구되거나, 어떠한 격식(格式)이 필요 없는 것이며, 오직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움의 전당에서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진리를 학습하며 배움의 동반자인 친구를 사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동안 서로에게서 학습이나 각종 정보, 생활 예절 등 많은 것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의 소중한 인연가꾸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우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정(Friendship)이란, 서로 용서하며(Forgive),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며(Refresh), 서로 투자하며(Invest), 서로 격려하며(Encourage), 서로 공감하며(Nature), 서로 의지하며(Depend), 서로 나누며(Share), 서로 절친하며(Intimate), 서로 기도하는 것(Pray)이다. 감사합니다.

Advertisement for 'Seon' (孝) education program. Features a large '孝' character, a photo of a man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Kim Bong-gon), and text describing the program's focus on traditional education and ethic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33) 441-3823-4 and website http://www.ichunghak.com.